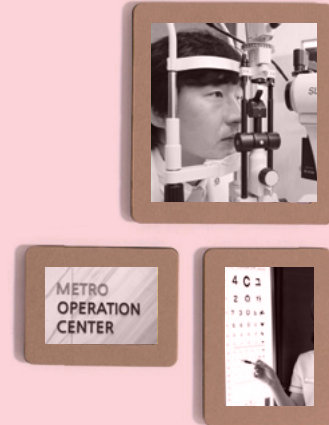


당신께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한 수술** 그리고 **수술후의 즐거움** 입니다.



SPRING SUMMER 2015 Vol.9



Best
choice안과 의사가
선택한 안과메트로안과는 **의사 202명**이 라식, 라섹수술을 받은 병원입니다.

●●● 첨단 검사장비와 수술장비, 숙련된 전문의를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수술법
라식 / 옴티프리미엄
전 좌 0.1 우 0.1
후 좌 1.5 우 1.5대구 새빛안과
이수형 원장의
라식 체험기메트로안과라서 수술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굴절교정수술을 결심하고, 메트로안과를 선택했습니다. 메트로안과는 언제나 업그레이드된 기술도입에 주저함이 없고 믿음만한 가장 우수한 의료진이 가장 안전한 수술을 하기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세심한 수술직전 검사 후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수술직후 아직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회복실로 가기 위해 살짝 눈을 떴을 때 벌써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나도 안경을 벗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눈부심은 거의 없고, 렌즈착용시절 더 심한 건조증을 경험해 본지라 건조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Best
quality경북대 의대
안과 교수 강경만의
라식 체험기수술법
라식 / 옴티프리미엄
전 좌 0.1 우 0.1
후 좌 1.2 우 1.2이렇게까지 회복이
빠른지 몰랐습니다

저의 경우 굴절교정수술이 꼭 필요하겠지만 직업상 현미경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되어 수술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트로안과를 찾아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날, 수술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다시 한 번 더 굴절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기다림 없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안경과 이별을 고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식은 회복이 빠르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회복이 빠르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몇 년간 수술을 하지 않고 고민만 해왔는지 후회가 될 정도로 시력의 질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문경 삼성안과
박대홍 원장의
라식 체험기수술법
라식 / 옴티프리미엄
전 좌 0.1 우 0.1
후 좌 1.5 우 1.542살에서야 겨우
받게 된 라식수술! 대만족입니다

제 눈은 수술 전 꽤 고도근시였고, 더구나 난시도 심했습니다. 오래 전 라식기술이었다면 아마도 저는 라식수술 전 검사에서 수술불가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다행히, 최근 라식수술 장비들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고, 특히나 이곳 메트로안과에 있는 수술 장비들은 그 중에서도 최첨단의 것들이라, 저같이 고도근시, 고도난시 환자도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메트로안과의 모든 원장님들도 메트로안과에서 라식, 라섹수술을 받았다는 점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믿음이 갔습니다. 수술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수술하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선글라스를 이제야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천 한빛안과
나승찬 원장의
라식 체험기수술법
라식 / iFS (인트라) 라식
전 좌 0.1 우 0.1
후 좌 1.2 우 1.5짧은 수술로 삶의 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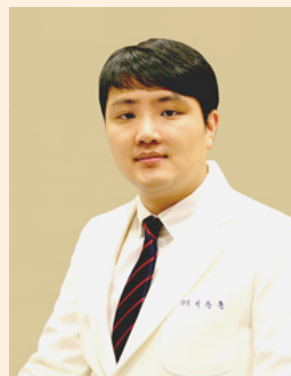
사실 이전에는 라식수술의 부작용 등이 부풀려져 일반인들이 라식수술 기피하기도 했지만 인트라 라식이 도입된 후로는 절편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안전성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라식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안과의사로부터 직접 수술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술은 수월하고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수술 후 1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저희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 별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원장님 너무 젊어졌다고 하십니다. 안경 하나 벗는 게 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이진영 원장의

옵티 프리미엄 라식 체험기

PROFILE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
경북대학교병원 안과 전문의
포항성모병원 안과 과장
대한안과학회 정회원
한국콘택트렌즈 학회 정회원
한국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 정회원
미국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 정회원



굴절교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안경을 끼면서 진료를 보는 것은
저희를 믿고 오시는 환자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최적화 맞춤수술

수술법
라식 / 옵티프리미엄

전 좌 0.1 우 0.1
후 좌 1.5 우 1.2



축구를 할 때

항상 안경이 깨지거나 부러진
안경테에 다쳤던 경험, 목욕할
때 잘 보이지 않아 부딪혔던
일, 수영장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가 잃어버려서 찻노라 고
생했던 일, 운전할 때 눈이 부
셔도 아무 선글라스나 낄 수
없었던 일 등등 많은 불편한
저의 일상들이 떠오르더군요.
안경을 오랫동안 쓰면서 안
경이 주는 많은 불편감이 일
상의 한 부분으로 되어 당연
히 그런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식수술 결심
을 하고 나니 뭔가 새로운 인
생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Best
quality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모두 진행하고 김동주 원장님
께서 꼼꼼히 저의 굴절률을 확인해 주신 후에
교정할 도수를 정하셨습니다. 검사 중 우연히
제 망막이라는 신경에 작은 열공이 발견되어
김동주 원장님께서 꼼꼼히 레이저 광응고술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수많은 환자분에게 레이
저 광응고술을 시행하였지만 막상 제가 받아
보니 환자분이 언제 불편한지, 환자분이 가지
는 통증이 어떤 것이었는지, 불안감은 어떤지
에 대해서 환자입장에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사지만 꼼꼼히
검사해주시고 치료해주신 김동주 원장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대기
중 불현듯 제가 수술에 잘 협조하여 별 문제없
이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위해 일회용 소프
트렌즈를 샀지만 렌즈를 눈에 끼우는데 실패했
던 기억이 났습니다. 렌즈를 끼우지 못할 만큼
눈이 예민해서 혹시 수술 중 갑자기 눈을 움직
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습
니다. 이런저런 생각 중 전 이미 수술실에 들어
와서 소독을 마친 후 수술 침대에 누워 있었습
니다. 그때 믿음직스런 김동주 원장님의 목소
리가 들렸고 쿵광거리던 제 심장은 차츰 차분
해졌습니다. 눈이 벌어지고 단 6초 만에 각막
절편이 만들어지고 자리를 옮겨서 10초 동안
엑시머 레이저 조사를 받고 수술이 끝나버렸습
니다. 총수술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 놀랐
고 수술 전 걱정했던 통증은 수술 중 전혀 느끼
지 못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오면서

본 시야는 약간 흐리게 보였지만 라식 수술을 받기 전 안경
을 벗고 있을 때 보다 훨씬 잘 보였습니다. 와이프가 8년 전
서울 모 안과에서 수술 받은 후 수술 당일에는 통증이 심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 때문에 마취효과가 끝나
면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약간의 이물감만 있었으
며 통증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3시간 후
와이프와 저녁식사를 하러 직접 차를 몰고 음식점으로 향했
지만 약간의 빛번짐만 있을 뿐 눈은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안경을 벗으면서

조금 더 지적으로 보이던 저의 이미지는 없어 졌지만 환자에
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과 이해심이 생겼
습니다. 앞으로도 제 주위 지인분이나 환자분에게 적극적으
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수술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전날 있었던 이물감도 느끼지 못하
였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고도 시계가 너무도 선명하
게 보였습니다. 수술을 한지 1주일이 된 아직도 아침에 일어
날 때는 습관적으로 안경을 찾고 세수할 때는 괜히 안경을
벗기 위해 얼굴로 손이 가지만 매우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
습니다. 소파에 기대 누울 때도 안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
고 운동을 할 때도 안경이 흘러내리지 않아 편리함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처음에 어색하던 제 얼굴은 차차 적응이 되
어가고 딸아이도 안경 벗은 제 모습이 낫다고 칭찬을 해주
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첨단장비가
꼭
필요할까요?

꼭
맞는
시력을
찾아
드립니다.

베리온

수술 받는 눈에는 네비게이션이 필요해!
수술전에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
가장 정확한 수술법을 계획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렌즈엑스

사람의 손으로는 1000분의 1mm의 정확도로 절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첨단장비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메트로안과는 정확한 시력을 찾아드립니다.

현미경

현미경은 의사에게는 눈과 같은 역할!
더 좋은 현미경은 수술하는 의사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주니,
수술의 정교함이 다릅니다.

센추리온

수술 받는 환자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중의 통증은 줄이고,
수술 후 회복은 빠르게!



의료선진국이 인정한
세계 최고의 수술장비

백내장 수술은 아주 정밀한 수술로 0.1mm의 오차에도 수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트로안과는 백내장 수술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의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일흔...
안경없이도 지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65세 주부 조덕례님



내 나이 일흔, 안경을 들고 가까이 당겨서 보던게 최근 들어 눈도 계속 침침해져 조금이라고 안경을 벗고 살 수 있다면 하는 기대감을 안고 안과를 찾게 되었다. 몇 가지 검사를 받아보고 수술을 결정하였다. 왼쪽 눈부터 먼저 수술을 하고 며칠 간격으로 오른쪽까지 하고 나니, 이제는 안경 없이도 지낼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안경 없이 보내기를 6개월, 안경을 벗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거 같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이준훈 의사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급형 백내장수술은 돈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0년을 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사용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
밝은 세상을 찾았다.”

57세 메디투어 대표 조현석님



수술 전 초고도근시에 노안, 백내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안과 검사 후, 안구삽입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는 이야기에 수술을 결심했다. 처음에는 왼쪽 눈을 먼저 수술했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3일 뒤에 오른쪽 눈을 수술했다. 수술 후 지금까지 전혀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렌즈가 삽입되어 있지만 착용감이 없고 자연스럽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 수술하는 과정에서나 수술 후의 결과에 100% 만족했기 때문에 많은 지인들을 추천해주었다. 그만큼 메트로안과의 실력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부터 수술까지 친절하고 자세하게 도와주신 메트로안과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완벽한 시력을 건강하게 되찾다
올레이저 라식·라섹의 정점을 찍다!

아마리스 레드

기존의 시력교정술 장비의 단점들이 개선되어 안정성이 높은 새로운 장비가 등장했다. 이미 등장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아 입소문을 타고 있는 아마리스 레드로 메트로안과의 라식·라섹수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같은 시력인데 왜 더 선명할까?
기존 수술보다 회복이 2배 빠르다고?

아마리스 레드니까!

- 세계 최고 속도 1050Hz
- 레이저 에너지의 최적화
- 7차원 안구추적 장치 탑재
- 획기적인 Free-Tracking (시간 지연:zero)

아마리스 1050RS 레드란 시력교정술 장비의 대표기업인 독일의 슈빈트사의 최첨단 엑시머 레이저장비이다. 아마리스 1050RS 레드의 '1050'은 현존하는 레이저 중 가장 빠른 레이저 조사속도 1050Hz를 뜻한다. 레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 아마리스기기에서 장비의 색 또한 빨간색으로 변경되었다. 아마리스 1050RS 레드는 안구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7차원 안구추적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1다음터에 1.3초 밖에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구 위치를 추적하고 레이저 조사하는 시간이 0초로 자체되는 시간 없이 안구 추적 결과를 즉각적으로 조사하는 유일한 엑시머 레이저 장비이다.

※ 〈시나자와 라식센터〉 공식발표

일본의 라식수술환자 80%가 수술 받는 라식수술 전문병원

‘아마리스 레드’ 라식수술 환자 1,748명의 수술 3개월 후 시력검사 결과

수술 환자 100% 모두 1.0 시력 달성, 1.5이상 시력도 98%



아마리스 1050RS 레드의
3無

수술 후 통증 **無**

각막 손상 **無**

수술 후 합병증 **無**

아마리스 1050RS 레드는 각막 절삭 시간이 단축되어 수술 시간 감소는 물론 각막이 레이저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각막의 열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손상의 최소화와 각막 세포의 저자극으로 수술 후 통증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마리스 1050RS 레드는 안구 움직임을 예측을 통해 기존 장비의 사용보다 수술의 안정성이 더 높아졌고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 제어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평생에 두 번 눈 색깔이 바뀌어요!

러시안블루

Tip. 고양이의 감정 읽는 법

흔히 하는 말로 개와 고양이는 감정표현이 서로 반대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 들어맞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개는 꼬리만 보아도 강렬한 기쁨이나 상대에 대한 공포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고양이는 꼬리뿐 아니라 표정이나 시선, 자세 등 몸 전체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낯선 상대와 만나 똑바로 눈을 뜨고 오랫동안 마주치는 눈싸움은 탐색이나 도전의 표시다. 익숙한 상대에게 가늘게 뜬 눈을 천천히 깜박이며 마주치는 것은 신뢰와 친근감의 표현이다. 더 가까워지면 손으로 쓰다듬어주지 않고 시선만 마주쳐도 목을 고르고 울리기도 한다.

러시안블루 고양이는 러시아 왕가, Czars 황실 고양이 후손이었다.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러시안블루는 예전부터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말썽도 피우지 않는 지혜로운 고양이로 명성이 자자했다. 고양이 중 유일하게 황실 교육이 가능했던 러시안블루는 걷는 모습, 먹는 속도 등의 예절 교육은 물론 주인의 명령을 올바르게 따르는 교육, 주인의 기분을 파악하는 교육까지 받았다. 그 때문인지 현재도 영리하고 지혜로운 러시안블루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Russian
Blue



러시아 왕가의 황실 고양이 후손이었고, 빅토리아 여왕의 애묘

러시안블루는 이름에 러시아인이 들어가지만 고양이 러시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추측될 뿐이다. 확실한 기원은 아니지만, 북부 러시아의 아칸젤 섬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원래는 아칸젤 블루 (Archangel Blue) 혹은 포린 블루 (Foreign Blue)로 알려졌었고, 1860년대에 선원들에 의해 영국과 북유럽으로 전해졌다. 2차 대전 때 거의 사라질 뻔했지만 혈통의 맥을 잇기 위해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의 고양이들이 교배에 참가했다고 한다. 푸르스름한 은빛 털색과 신비한 초록 눈빛,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어쩔지 웃고 있는 듯한 표정, 늘씬하면서도 다부진 체격에서 넘치는 매력은 '단모종의 귀족'이라는 별명에 어긋남이 없다.



젯빛 털과 에메랄드 빛 눈망울이 매력적인 고양이, 러시안블루

러시안블루는 길고 가는 뼈대에 유연한 근육질 체형이 돋보인다. 짙은 초록색 눈은 동그스름하며 눈 색깔이 두 번 바뀌는 것으로 유명하다.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짙은 청회색 눈이 생후 2개월령쯤 되어 노란색으로 바뀌고, 생후 5~6개월령 전후로 다시 한 번 초록색으로 바뀐다. 러시안블루는 이름과 같이 오직 블루 한 가지 색만 나타난다. 고양이의 파란색 털이란 푸르스름한 은회색을 말한다. 줄무늬나 얼룩무늬 없이 전신이 이 푸른 회색으로 균등하게 단색을 이룬다. 털 끝부분에 살짝 보이는 은색이 매우 우아한 광택을 만들어낸다.

애정이 넘치면서도 낯가림이 심해요

러시안블루의 성격은 온순하고 조용하며 내성적이다. 애정이 많은 고양이라 주변과 잘 어울린다. 집의 분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인이 우울하면 얼굴을 쓰다듬어 우울함을 달래주기도 한다.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믿음직스럽고 애교가 많으며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심이 많아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며,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친해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변치 않는 신뢰를 보여준다.



— 평~생 밝은 세상 찾기 프로젝트

— 소중한 '눈'

메트로안과의
각 연령대별 4단계
밝은 세상 찾기
프로젝트

0~10세

교정 어려운

약시와 사시

약시와 사시를 예방하라!

굴절이상 같은 현상을 일찍 발견해 교정해
주면 약시나 사시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시력발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10~20세

성장기 우리아이 드림렌즈 착용

드림렌즈 착용으로 근시를 억제하라!

눈은 뇌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학습장애, 뇌발달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 하는 것이 중요하다.



40세 ~평생

노안, 백내장이 걱정 된다면

제대로 검사하고 수술 잘하는 곳을 찾아보자!

40대 이후부터는 노안증상과
함께 백내장과 녹내장 등의
안질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M ETRO

정밀 검사를 통해
각종 안질환 예방과
조기진단으로
항상 건강하고
또렷한 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메트로안과



20 ~40세



라식, 라섹을 통한 시력교정

시력교정은 지금이 적기!

근거리 작업,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눈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안구건조증,
안질환 및 시력저하가 발생했다면
라식, 라섹을 통한 시력교정이 가능하다.

성장기 우리아이, 드림렌즈로 고도근시를 막아라

최근에 드림렌즈가 소개되어 아이들의 시력교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근시를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발표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논문마다 근시 진행 억제 효과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평균적으로 34% 정도 근시 진행을 막아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DREAM LENS



스마트폰 중독에 점점 나빠지는 우리아이 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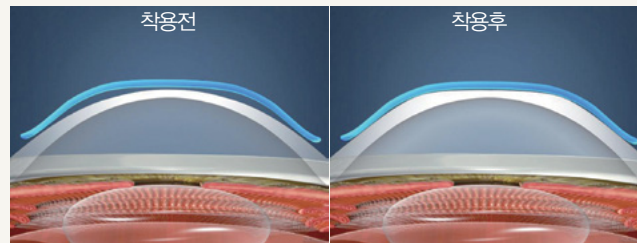
눈이 점점 나빠지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의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 한 번쯤 고민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2014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 고 1학년 27,333명 중 나안시력 0.7 이하의 시력이상 학생 비율이 5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 종일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으로 장시간 근거리 작업이 늘어나면서 성장기 근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근시가 시작되어 고도근시로의 진행은 망막박리,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의 유발률을 증가시킨다.

드림렌즈는 어떻게 근시를 억제시키는 걸까?

드림렌즈(각막 굴절 교정술)는 콘택트렌즈를 이용하여 근시의 진행을 조정하고 일시적으로 교정하여 좋은 시력이 나오면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잠자는 동안 렌즈가 각막을 눌러주게 되면 각막의 곡률이 평평하게 변하게 되고 그 만큼의 근시, 난시가 교정이 된다. 렌즈를 뺐다고 해서 눌린 각막이 금방 펴지는 것이 아니라 각막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렌즈가 없어도 시력이 교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착용하면 매일 시력이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존의 안경, 소프트렌즈, 하드렌즈처럼 눈에 착용을 하고 있어야 시력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게 하고 학교에 보낸 뒤 혹시나 친구들과 과 장난 또는 운동하다가 깨지거나 다치지 않을 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부모님들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성인에게도 효과적인 시력교정방법

이 뿐만 아니라 안경이나 일반 렌즈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라섹, 라식 수술은 하고 싶으나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성인에게도 드림렌즈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라섹, 라섹 수술 후 시간이 한참 지나면 근시 퇴행이 생기게 되는 데 이때 다시 생긴 근시로 인해 시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도 드림렌즈가 재교정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드림렌즈, 부작용은 없을까?

드림렌즈를 사용하기 전에는 철저한 안과적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세극등 현미경검사, 각막곡률검사, 각막형태검사, 각막염색검사 등을 시행하여 자녀들의 안구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후 각막 형태에 맞는 렌즈 주문 및 제작에 들어간다. 이어 테스트렌즈 및 유지렌즈로 시술을 완료하게 된다. 드림렌즈의 효과는 보통 6~8시간 이상 착용했을 경우 20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지속된다. 교정되는 시력은 0.7~1.2 정도로 낮 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드림렌즈는 수면 중 착용해야 한다는 특성상 이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적다. 특히 드림렌즈는 눈물 위에 살짝 떠 있는 형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면 중 눈을 비비거나 할 경우 각막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 다만 드림렌즈는 근시, 난시가 너무 심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아무래도 눈에 착용하는 렌즈이다 보니 렌즈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며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드림렌즈는 수술 없이 안전하게 시력 교정이 가능하며 시력호전을 수일 내에 느낄 수 있다. 연령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교정이 가능하며 잠잘 때에만 착용하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 부모의 통제가 가능하며 렌즈 분실의 위험이 적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근시 진행을 억제하며 성장기에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안경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SAFETY DREAM LENS

드림렌즈의 대상자

- 1 -6디옵터 이하의 근시와 -1.75디옵터 이하의 난시를 가진 분
- 2 진행성 근시가 심해지는 성장기 학생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탁월)
- 3 기존에 콘택트렌즈에 대한 부작용으로 렌즈착용이 불편하셨던 분
- 4 안경착용이 불편한 연예인, 운동선수, 신체활동이 많은 분
- 5 먼지나 바람 등이 많은 주변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
- 6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성인
- 7 이전에 라식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불완전한 분

슬픈 일이 발생하거나,
매우 아프거나,
감격하거나,
너무 행복하거나,
속이 매우 상하거나,
크게 놀라거나...

눈물이 솟아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흐르면 콧물도
같이 흐르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외로 간단히 답을
찾을 수 있다.

핑핑 울었다
눈물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콧물까지
범벅이 되어 흐른다.
왜일까?



사람은 1분당 1~2 μ l의 눈물을 분비한다.

이 눈물은 지방, 점액, 물의 혼합물로 안구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눈꺼풀이
눈물을 눈물점(puncta)이라는
구멍 속으로 밀어낸다.

또한 눈물점 속에는 눈물 주머니가 있는데 이를 흔히 눈물
샘라고 부른다. 눈물샘의 크기는 아몬드 크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엄청난 양의 눈물을 펄펄 쏟아내는 눈

물 공장으로 변할 수 있다. 이 눈물샘은 울 때만 눈물을 만
드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생산하
여 흘려 보내고 있다.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은 가느다란 눈
물관(누관)을 따라 눈으로 나온다. 이 수액은 눈에 들어온
먼지를 씻어내고,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눈
을 깜박이면, 그때마다 눈물은 눈 전체에 퍼져, 마치 자동
차 앞 유리의 와이퍼처럼 눈을 청소해준다. 눈물관이 막히
거나 하여 눈물이 나오지 못한다면 안구가 말라 고통스러
우므로 급히 의사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눈이 자극을 받거나 슬픈 감정이 밀려들면 눈물 생
산량이 많아진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 소재 마운트 사이나
이 메디컬센터의 안과 의사 페니 애즈벨 박사에 따르면 우
리 눈은 한쪽에 약 7 μ l의 눈물을 담아둘 수 있다. 눈을 씻어
내고 남은 눈물은 눈 안쪽 모퉁이에 있는 다른 통로를 따라
코로 흘러내려간다. 코로 들어간 대부분의 눈물은 몸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 밖으로 흘러넘치
고도 남은 눈물이 눈물관을 따라 코로 들어가 콧물이 된다.

눈물 주머니에서는
눈물이 새로 주입되는 만큼
기준에 보관 중이던 눈물을
코와 목구멍으로 보낸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하루 종일 진행된다.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갑자기 많은 눈물이 나오는데, 이
때 흐르는 눈물은 감정 변화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픈 것
이 신호가 되어 눈 속의 먼지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눈
물의 성분은 대부분 수분이지만, 그 안에는 염분, 기름기,
탄산나트륨 등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눈물이 짭짤한 것
은 염분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감정의 변화로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울기 전보다 정신적으로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이것 또한 궁금한
'눈물의 신비'이다.

감정이 크게 변하거나 아픔 등으로 눈물이 솟게 되는 것은,
정신적인 변화가 뇌에 작용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
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때 생긴 호르몬은 눈물 속에도 조
금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나면 스
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감정도 얼마큼 가라앉아 안정
을 찾게 된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실컷 울고 나면 비운 뒤
처럼 마음이 개운해진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남자들이 요리한다

든든한 밥 한 그릇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없던 힘도 다시 나기 마련이다.
지금은 '오늘 뭐 먹지' 대신 고민해주며, 마음 놓고 냉장고를 부탁할 수도
있고, '삼시세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남자들이 대세다. 평범하지만 위
대한 레시피를 찾아 감동을 주는 요리를 하고 있는 '남자' 셰프를 찾아본다.

Cook & Chef



토함산 식당
권용태 셰프



안티카빌라
서주형 셰프



청산아오야마
우창하 셰프



대어초밥
김종현 셰프



Cook & Chef

가장
한국적인 맛을
담아낸다

20여년 무던한 집요함으로
고스란히 자신의 시간을 내어
준 권용태 셰프의 토함산 식
당은 깊고 풍부한 맛으로 아
름다운 한국의 서정과 품위를
동시에 지닌 듯하다.



토함산 식당 권용태 셰프

닭볶음탕, 백숙, 오리불고기, 윗닭 등 그저 평범할 수 있는 요리에 물의 깊이를 더함과 동시에 천연조미료와 20여가지의 양념을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 낸 정성을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20여년을 한다는 일은 어쩌면 꽤 고단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치라고 말하는 토함산 식당의 정성은 감동이 아닐 수 없다.

📍 경북 경주시 새골길 197
(하동 582-3)
☎ 054)745-1752

가치를
알아주는
일식

도쿄 긴자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
과 포항, 마산, 통영 등지에서 직
접 공수하는 재료의 신선함에서
이미 초밥의 맛은 판가를 난다.



청산아오야마 우창하 셰프

일본 TV에도 많이 출연해 유명세를 치를 만큼 그는 신선한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을 이끌어
내어 손님에게 최상의 맛을 선사한다. 특히 콩치회를 맛본다면 접시에 담아낸 모습이나 신선
도 등에서 이제껏 맛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우창하 셰프는 반짝이는 눈으로 최선의 손맛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 대구 수성구 상록로 11
(범어3동 557-36)
☎ 053)741-7044



안티카빌라 서주형 셰프

음식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간단한 이탈리아인들은 특히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요
리를 최고로 친다. 안티카빌라는 최소한의 양념과 심플한 장식만으로 재료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는 요리법으로 손님들의 미각을 사로잡는다. 허브와 채소를 직접 가꾸어 사용하며 농
가와 직거래하는 고기는 40여일의 숙성기간을 거쳐야하는 서주형 셰프만의 엄격한 규칙이
존재하는 자연주의 레스토랑 '안티카빌라'이다.



대어초밥 김종현 셰프

대어초밥은 입 안 가득 채우는 두툽한 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손님이 원하는 식감으로 회를 준
비한다. 최상의 맛과 신선함을 유지한 회와 입안에서 사르륵 녹는 초밥, 튀김 등 제철에 맞는
식재료와 생선을 맛 볼 수 있다. 훌륭한 도다리 회뿐만 광어와 우럭, 농어, 방어와 같은 신선하
고 두툽한 회를 한 점 찍어먹으면 여기가 왜 소문난 맛집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

셰프,
이태리를
담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편안한 이태
리의 소박함을 안티카빌라에서
경험하는 기분이란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감성과 서정이 보태
어지는 특별함이 있다.

📍 대구 남구 용두1길 84
(봉덕동 1222-16)
☎ 053)471-3523

먹기도
아까운
화려한 한상

엄선된 신선한 고급재료와 조리
사의 장인정신이 깃들고 품격 정
통 일식요리의 맛과 정성으로 고
객 한분 한분을 기억하고 그분들
의 취향에 맞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
(두산동 206-5)
☎ 053)768-2323

라식할까?

라섹할까?

라식

VS

라섹

적음

시간적여유

많음

예민하다

통증여부

덜 예민하다

자외선 영향 적음

야외활동

자외선 차단 필요
(6개월)

3~4시간
1개월

통증시간
약물치료

2~3일
3~6개월 *개인차가 많음

100만원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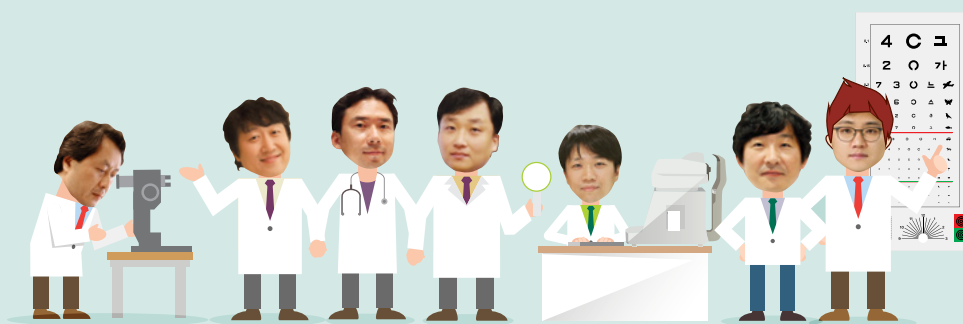
수술비용

100만원 초반

팜토세컨드
+ 엑시머 (2step)

레이저
수술장비

엑시머 (1step)



눈에 칼을 댄다고?

"칼날"을 이용하여 라식을 하는 안과도 있습니다.

메트로안과 라식은 칼날이 아닌, "첨단 레이저장비"를 이용합니다.

칼날 라식에 비하여 "레이저 라식"은 안전성, 건조증, 수술이후 잔여각막, 추가교정, 외상 등에서 월등히 좋습니다.

노안교정 백내장·다초점렌즈

Q 노안의 증상은?

A 노안이 시작되면 가까운 곳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책을 점점 더 멀리 보게되어 '팔이 길어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래 안경을 끼던 사람은 안경을 벗어야지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습니다.



Q 노안, 백내장은 왜 생기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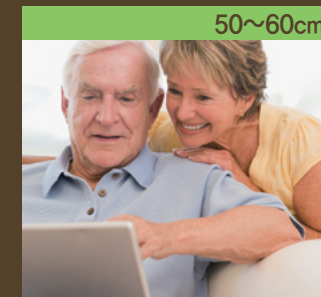
A 노안, 백내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수정체는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노랗게 변하게 되고 주변 혹은 중심부에 혼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내장으로 빛이 번지기 때문에 물체가 흐리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Q 백내장 초기인데 꼭 수술 해야 하나요?

A 백내장이 진행함에 따라 물체의 형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색감이 점점 저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력만으로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겪는 여러 어려움 등을 종합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어떤 "다초점 백내장수술"이 가장 좋나요?

A 다초점 인공수정체(다초점 백내장수술에 사용하는 렌즈)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함으로 본인의 습관과 필요를 고려하여 적절한 '초점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핸드폰, 화장	30~40cm
노트북, 태블릿PC	50~60cm
요리, 일반컴퓨터	70~80cm
골프, 테니스	100~110cm

독서 + 골프	2중 초점 렌즈
노트북 + 골프	2중 초점 렌즈
독서 + 노트북 + 골프	3중 초점 렌즈

렌즈모델에 따라 초점이 잘 맞는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독서, 컴퓨터, 골프를 모두 즐기신다면 3중 초점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Q 백내장 수술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나요?

A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백내장수술 이후에
• 돋보기가 필요한 '일반 백내장수술'
• 돋보기가 필요하지 않은 '다초점 백내장수술'
〈일반 백내장수술〉 원거리 시력은 회복이 되지만 근거리는 잘 보이지 않아서 돋보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초점 백내장수술〉 근거리와 원거리 시력 모두 회복할 수 있는 특수 다초점 렌즈를 사용합니다.

Q '다초점 백내장수술' 이후 주의사항이 있나요?

A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시 초기에는 빛번짐이 있으나 뇌에서 적응하게 되어 점점 감소되며 결국에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호전됩니다. 대개 2~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나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다초점 백내장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더라도 한쪽 눈은 먼 거리를, 다른 한 쪽 눈은 근거리를 보도록 도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입체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 마음을 읽는 기술

눈맞춤

처음 본 상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나요?

아무 말도 없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간단한 질문도 없이 그저 상대의 눈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특별히 낯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눈을 맞추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 할 때는 상당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감정
세계로 들어오는 열쇠를
상대에게 주는 것이다.

눈맞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사람 사이를 강력하게 연결해,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상대와의 유대감이나 신뢰를 순식간에 끌어올린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주의력 결핍증이 만연한 시대에서 눈맞춤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완전히 집중하고 함께 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마주보는 게
두려운 시선 공포

의외로 눈맞춤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눈을 맞추는 순간 웃을 수도 있고, 그 눈맞춤이 사랑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무서운 시선이라 느껴 눈길을 열른 피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눈을 맞추는 행위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눈맞춤은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거절 할 수도 있고, 위협 할 수 있는 무언의 언어이다. 올바른 눈맞춤은 말로 하지 않아도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전세계인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다.

아이컨택이 충분할 때	아이컨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말하는 것에 응숙해 보인다.	무미건조해 보인다.
상대방의 반응을 감지하 며 대응할 수 있다.	상대방의 반응을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신뢰감을 준다.	긴장감이 커 보여서 불안감을 준다.

잘못된 눈빛의 예를 살펴보면

눈을 천장 쪽으로 치켜뜨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 머릿속 이 바빠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잃게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 지만 마주치자마자 눈을 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불편함,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만약 발 표를 하면서 청중을 바라보고 있지만 누구와도 눈 을 맞추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대 일의 눈맞춤 효과 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맞춤의 기술은 간단하다. 첫 눈맞춤은 1초간 일어난다. 1초 동안 자신의 마음을 눈에 담아 전달해야 한다. 이 때 따뜻한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진지한 눈맞춤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 1초의 눈맞춤에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상대는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1초의 눈맞춤 후 다음 눈맞춤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도록 한다. 최소한 3~5초 정도는 함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다. 너무 짧으면 눈의 움직임이 부산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선과 몸의 방향이 같이 움직이도록 한다. 몸의 방향과 시선의 방향이 다르다면 마치 눈을 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한다면 대화의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글자는
뜻을 알 수 없는 기호

난독증을 해결하는 서체 디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윈스턴 처칠,
토마스 에디슨,
스티븐 스피버그.

각자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들이
서로 공유하는 특징은
무엇일까?



낯선 비밀 한 가지를 밝힌다면 이들 모두에게 읽기 장애가 있다.
바로 난독증. 전문 용어로는 발달성 난독증(developmental dyslexia)이라 부르는데, 읽기에 필요한 시력과 지적 능력, 교육 기회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자를 판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 장애다.

정상의 경우

ando la pera. La bambina asc
illo è magro. La quercia si tro
fiore è rosso. La bambina ave
ola. Il ragazzo non ha né capp
stanno saltando sopra il murc
no seduti e guardano verso la
terrazza potrebbero vedere tu
tetto della casa si vede anche
to, ma non il bicchiere. L’elef
o sul ramo dell’albero. La bar
i è verde. I ragazzi raccolgono

난독증 환자의 소용돌이 현상

tion, in which the Administration on Aging finds
of 1977 & 1984 example of this problem. As a
state agency under the Department of Health,
vention, and Welfare. It operates independently of
Federal Office Financing Administration (which ad
ministers both the Medicare and Medicaid programs),
it is also distinct from the Social Security Admini
stration. ARJER administers the Old Age and Survivors
Insurance program, along with the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program. It is of course separate from
Departments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ducation, Labor, and Agriculture, all of which
administer major programs directly affecting the el
derly, as well as from the Veterans Administration
which provides long-term care for many elderly veter
ans and administers various veterans benefit programs.
In addition, Congress failed to spend sufficient
money on the Veterans Administration—the Administration

텍스트의 중심이 씻겨나가 보이는 현상(Wash-Out
Effect), 두번째로 텍스트의 여백이 두드러져 강물
처럼 보이는 현상(River Effect), 마지막으로 글자가
회전하며 겹쳐보이는 현상(Swirl Effect)이 있다.

난독증은 뇌 회로에 생긴 결함 때문에 일어난다

난독증은 선천적인 뇌 구조에 문제가 생겨 일어나는 질환이다.
인류가 지식을 전달하는 주요 포맷인 텍스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시험 성적 등에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일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가끔 난독증을 몇몇
선택받은 천재에게 다가온 가혹한 시련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아니다. 난독증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으나 그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난독증 치료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해야 효과가 크다.
난독증은 저절로 낫지 않는다.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던 아이 4명 중
3명은 고등학교로 진학해도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읽기 능력은
학업성취도와도 관계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난독증 치료는 소리글자(예를 들어 한글)를 구성하는 음소 하나 하나의
음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빨리
읽기, 빠른 이름 대기 훈련' 등으로 점점 그 속도를 높인다. 난독증은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크며, 꾸준히 치료
하면 1~2년 내에 거의 완치할 수 있다.

글자가 만드는 일상의 소중함, 난독증을 위한 서체 디자인

난독증에 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
졌지만, 최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던 디자인이 난독증 치료에
있어 흥미로운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난독증은 크게 '표층적
난독증'과 '음운성 난독증'으로 분류된다. 난독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리지만, 소리와 시각이 함께 관여되는 부분이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단어의 시각적 형태
인식과 밀접한 표층성 난독증은 글자의 겉모습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모든 텍스트는 결국 기호를 통해 우리에게 흡수되고, 그 기호는
글자로 나타난다. 서체는 글자에 특유의 형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서체를 조율하는 방법에 따라 난독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녔다. 난독증과 서체 디자인을 연결시키는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다. 하지만 난독증 서체 디자인 프로젝트는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확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난독증
서체 덕분에 50년 동안 읽두를 내지 못했던 독서를 시작하게 됐다는
어떤 노인의 일화처럼 일상을 바꾸어나가는 존재로서 디자인의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안과의사는 라식 수술을 안한다??

메트로안과 원장 7인은
본원에서 라식·라섹수술을
받고, 그 경험으로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1

라식

이상희 원장

라식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그 수술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안된다는 생각에 라식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젠 의사들도 안경을 벗는다!
본원에서 직접 수술 받은 메트로
안과 원장 7인을 소개합니다.
직접 수술 받아보니, 고객의 입장을
더 생각 하고 고객을 향한 마음
에서 수술하게 되었다는 메트로
안과 의료진.

안과의사는 시력교정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소문,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때문에 라식수술을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안과의사도 라식, 라섹수술을 받습니다.



라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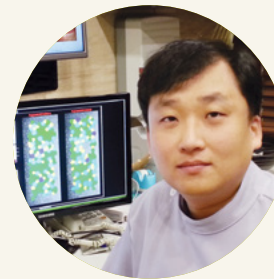
박성빈 원장

낮익은 수술방인데도 내가 환자가 되어 수술침대에 누워보니 생소했어요. 환자 분들도 이렇게 떨리고 불안했구나 싶더군요. 안경없이 생활하게 되어 만족했고, 무엇보다 환자분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지요.

옵티
프리미엄
라식

이준훈 원장

수술 후 눈을 떠보니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서 놀랐습니다. 주위에서 느낌을 물어보면 '예전 일반 전화기 쓰다가 스마트폰 쓰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니까요.

올레이저
라식

심삼도 원장

10분정도 남짓한 수술시간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직후 바로 또렷하게 보이고 일주일 후에는 안경없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35년 동안 함께했던 안경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옵티
프리미엄
라식

이진영 원장

안경을 벗으면서 조금 더 자적으로 보이던 저의 이미지는 없어 졌지만... 환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신감과 이해심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직접받고 좋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고, 주위분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옵티
프리미엄
라식

김동주 원장

심삼도선배님이 수술을 해주셨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너무 만족하셔서 저도 수술받게 되었는데, 수술한 이후에는 제가 다른 분들께 많이 권하고 있지요.

올레이저
라식·라섹

채선화 원장

한쪽 눈에는 라섹을 다른쪽 눈에는 올레이저라식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 라섹과 라식을 모두 경험한다면 환자분께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죠. 각각 다른 수술을 한 것에 대해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랑을 고마워 최고야

행복을 지켜줄
우리 가족의 사랑의 언어

가족이란 부부가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이 자라며 부모 자신이 성숙해지는 중요한 공동체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모든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가장 가까이 있기에 오히려 상처받기 쉬운 관계, 가족, 가족심리학으로 본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지금 나와 내 가족은 행복한지 돌아보자.

가족 내에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아 감정의 골이 깊어 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상담소를 찾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한 노부부의 경우 70세 할머니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녀의 권유로 상담실을 찾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이혼을 요구한다며 화가 많이 나있었다. 젊은 시절, 별다른 불평 없이 잘살아 온 할머니가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 속내를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아무 말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다 출가를 했고 몸도 아픈데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싫다고 했다. 이 경우처럼 너무 긴 시간동안 상처받고 사는 아내의 남편은 아내가 참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율은 1990년에는 인구 천 명당 1.1명에서 2013년에는 3.4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고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혼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과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얼마나 제대로 표현하며 살고 있을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표현할 기회가 얼마나 될까? 의사 표현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고 후, 버릇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행복한 가족관계의 공식, 사랑과 감사, 칭찬과 인정의 말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태기에 접어들고 배우자를 통해 나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외도, 알코올 중독, 도박 등 여러 가지 가족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배우자의 욕구와 열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추상일 뿐 실체가 아니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감사는 허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멋있어!”, “사랑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서 정말 고마워!”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일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도 ‘칭찬과 인정’으로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욕구는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인정’, 그리고 ‘격려’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직장과 일에서 다소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과 격려’를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하는 일에 대해 “정말 최고야!”,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꼭 성공하리라 믿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자. 이를 통한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성공 확률을 더욱 높이는 긍정에너지가 될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습관처럼 던지는 말은 때에 따라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할 때마다 가족은 살아나고 내게도 필요한 사랑의 언어가 다시 돌아온다. 이런 선순환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 마음에 잠자고 있던 B컷을 꺼내들다

만들어 나가는 것과 이루어내는 것의 차이는 매우 미묘하지만 그 미묘함에 스스로 감동하며 편집인으로서의 경험에 스스로 격한 기쁨을 표출해 본다. '종이'라는 신비로움에 매료되고 그 위에 깔려지는 내용의 충실함은 의사로서 그동안 만들어 낸 충실함과 사뭇 다른 낯설지만 행복한 고민의 결과였다.

환자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을 알게 해준 이번 메트로안과 9호의 책은 그래서 나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고객과의 다른 만남을 일깨워 준 유일함이었다.

괜찮다. 괜찮다... 속으로 여러 번 되내이며 마른 종이의 한 장 한 장을 자식처럼 고운 눈 빌어 닦도록 바라본다. 또 다른 첫인상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 살면서 또 있을까 생각했지만 우연처럼 그리고 필연처럼 내 첫인상을.. 병원의 첫인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 제법 손끝을 저리게 하고 눈을 떨리게 한다.



책이란게 참 묘하다. 전체 화면이 흐트러져 도저히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르는 억척같고 무지한 지경까지 이르러도 기어이 내 눈 하나 반짝이며 잡아내고 나니 제법 쓸만한 우리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내니 말이다. 이번 9호 책을 발간하면서 나는 잠시 휴가를 다녀온 기분이었다. 고즈넉한 시골풍경과 현란한 도시를 체험하듯 스스로도 정신없던 그러나 꽤 멋스럽고 유난스럽지 않은 여행.....

누군가와 끊임없이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안과의사인 내가 마음을 맞추기 위해 정성을 다한 책 작업은 복잡한 자유를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비로소 정리되는 기분이었고 오랜 시간 잊지 못할 추억이자 풍요로움이었다.

눈을 맞추는 것처럼 마음을 맞춰나가는 사람이고 싶다. 더불어 편집인으로써 또 다른 경험을 하며 내 스스로의 열정에 새삼 놀랄 수 있는 기회를 준 메트로안과의 이상희, 박성빈, 심삼도, 채선화, 이준훈, 이진영 원장님들께 감사하고 편집을 위해 만났던 사람들...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눈을 비롯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2015년 봄과 여름 사이 편집인 **김동주** 원장

최첨단 & 최상급 레이저 수술장비

서울을 가시나요?
서울 안과보다 더 좋은 장비를 대구에서 만나세요

Zero~의사의 선택입니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은분들이
선택했습니다!!
10년동안 실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착한 수술비용

타 안과 어느 곳보다 착한 비용인데...
꼼꼼히 따져보세요

라식·라섹 수술비용의
진실이 보입니다

안과 수술 의사 김민환

당신께 가장 가까운 안과
메트로안과와 함께한
라식·라섹은 수술이후에도
부담 없이 계속됩니다



7명의 안과전문의

한 주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7일
음계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의 7음계
무지개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7색깔
메트로안과가 드리는 행운

라식 · 라섹 · 노안 · 백내장